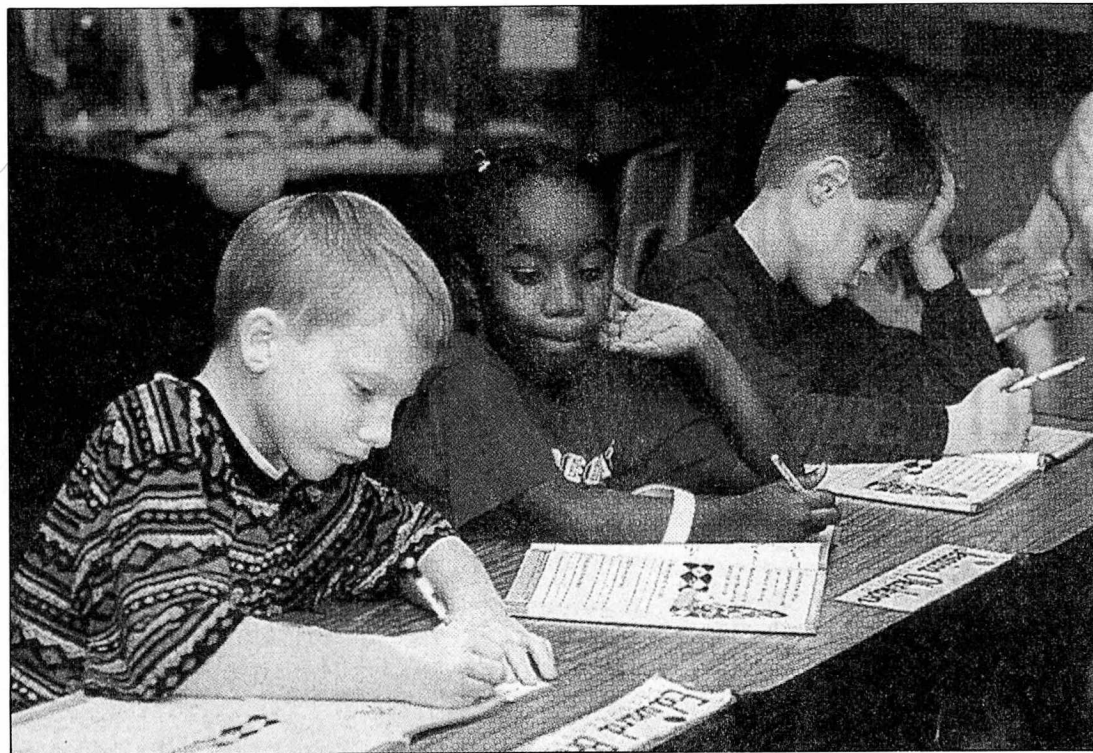


부모를 위한 어린이책 서평지 등장

미네소타주 지역계간지 부록으로...연령별 우수아동도서 시상도

이희재
번역가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골라줄까”의 고민은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에서는 부모를 위한 아동서평지가 발간, 어린이 독서방향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어른들을 겨냥한 아동서평지가 미국에서 탄생했다. 화제의 잡지는 미네소타 주의 지역 계간지 헝그리 마인드 리뷰誌가 펴내는 부록「칠드런즈 북 서플리먼트」. “아이들에게 직접 책을 골라 사주는 양식 있는 부모들을 위한 서평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헝그리 마인드 리뷰誌 주간 바트 슈나이더는 말한다.

창간호는 1991-1992 겨울호로 지난 11월 헝그리 마인드 리뷰에 24쪽 분량으로 끼워 넣어 첫선을 보였다. 앞으로 본지와 함께 정기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헝그리 마인드 리뷰의 정기구독료는 12달러이며 400여종의 서점에는 무상으로 대량 공급한다. 본지에 넣는 4만부 말고도 부록은 2만부를 더 찍어 아동 전문서점과 대형서점의 아동서 매장에 뿌릴 예정이다. 부록은 따로 구독할 수도 있는데 연간 구독료는 7달러. 편집은 시인인 수전 마리 스완슨이 맡고 있다.

미국 ‘중서부의 서평지’를 자임하는 헝그리 마인드 리뷰는 5년 전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시에 있는 헝그리 마인드 서점에서 발간됐다. 매호 겨울, 동물과 가족, 음악과 풍경, 역사와 이야기 등 특집을 꾸며 독자들의 눈길을 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슈나이더는 주위에서 아이에게 읽힐 책의 선택에 고심하는 젊은 부모들을 많이 보았다. “책을 많이 읽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직접 골라주려 하지만 서점에 가면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 부록은 본지와 똑같은 주제 아래 서평, 기사, 짧은 에세이 등을 실게 된다. 본지 기고 작가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창간호에는 유명한 아동문학가 주디 블룸과 가정 내 검열을 주제로 나온 대담, 여섯 명의 작가가 자기 아이들에게 독서에 관해서 들려주는 글, 그 외 수십 편의 서평이 실려 있다.

헝그리 마인드 리뷰에서는 또한 매년 세 단계의 연령으로 나누어 그해의 아동서를 선정 수상할 계획인데, 수상자들은 봄호에 발표된다. 슈나이더는 “집안 책꽂이에 마음놓고 꽂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소개하고 싶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힌다.

독일의 주간지 디 자이트誌에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수십 쪽의 신간서평 특집을 꾸며 독자들에게 독서의욕을 불러일으키면서 충실한 독서의 길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 물론 그 안에는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책들이 따로 분류되어 소개된다. 얼마 전에는 발행부수가 거의 백만 부에 육박하는 「브리기테」라는 여성지에서 가을에 나온 신간들을 웬만한 주간지 이상가는 규모의 별책부록으로 소개해 출판인들의 찬사를 받은 일이 있다. 선진국의 정기간행물들은 이처럼 출판사와 독자를 이어주는 충실한

가고 역할을 하고 있다.

문예만화 장르 개척하는 독일출판

독일의 알타미라 출판사에서 이탈리아의 만화가 디노 바탈리아와 함께 본격 문학작품을 만화로 펴내고 있다. 문학작품의 만화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문학적 언어를 구체적 이미지로 옮기는 작업을 여러 곳에서 시도한 바 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는 것이 알타미라 출판사의 진단이다.

문학이라는 미명하에 싸구려 모험담, 수준낮은 통속소설에만 손을 댔고 그나마도 개악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알타미라 출판사는 이런 경향에 썩기를 박을 참이다. 브리기테 발츠 이사는 이렇게 말한다.

“알타미라는 구석기 시대의 스페인 동굴벽화에서 따온 이름이다. 말하자면 원시만화인 셈이다. 우리 출판사는 만화라는 기호가 리틀 네모, 타잔, 아스테릭스, 미키 마우스를 까마득히 넘어선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만화는 재미있고 익살스럽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산다. 그러나 말과 그림을 예술적으로 결합하여 새롭고 진지하면서도 밝고 명랑하게 문학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배경색을 거의 넣지 않는 디노 바탈리아의

섬세한 필치로 이미 4권의 작품이 나왔다. 「골렘, 유대교의 한 전설에서」, 게오르크 뷔히너의 「보이체크」, E. T. A. 호프만의 「잠의 요정 / 페가」, 에드거 앨런 포우의 「붉은 죽음의 가면 / 어서 가의 몰락」 등 쟁쟁한 작품들을 엄선했다.

한편 미국의 머큐리 하우스에서는 「그늘 속의 명작 시리즈」(Neglected Classics Series)를 기획하여 첫 작품으로 루이스 캐롤의 「실비와 브루노」(Sylvie and Bruno)를 내놓았다. 이 시리즈는 세계 문학 속의 알려지지 않은 주옥같은 작품을 발굴하여 소개한다는 것인데 역시 풍부한 삽화가 곁들여져 있다.

머큐리 하우스의 토머스 크리스찬센 수석 편집자는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전즈 웨이크」에 영감을 준 작품이 바로 루이스 캐롤의 「실비와 브루노」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시리즈에 착안했다고 한다. 두번째 작품으로는 이탈리아의 에드거 앨런 포우라고 일컬어지는 이기니오 타르체티의 「환상 이야기」(Fantastic Tales)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성을 보아가면서 이 시리즈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구미 각국의 출판사에서는 이렇게 과거의 고전들을 새로운 형식으로 소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독일 알타미라 출판사의 본격 문예만화 출판은 이 분야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독일 출판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쟁 뜨거운 日 현대용어사전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이 알아야 할 용어들을 간결하게 설명한 현대용어집이 일본에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웬만한 일본 성인의 책상 위에는 매년 개정되는 이 용어집이 놓여 있다고 한다. 현대용어사전은 국제관계·정치·경제·문화·과학 등의 분야별 최신 용어를 수록한 것. 외래어·유행어·약어를 포함해 각 분야의 신어가 실려 있어 일종의 백과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自由國民社에서 나온 「현대용어기초지식」의 특징은 낮은 필진의 시대평이다. 평론가 扇谷正造의 「사회풍속」과 赤塚行雄의 「올 한 해」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집으로는 소련 정세, 시장 통합을 앞둔 EC를 주제로 「신질서를 지향하는 세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87년부터 뛰어난 集英社の「이미다스」는 시각적인 편집을 앞세운다. 사진·도표 등의 수록량이 가장 많고 특히 컬러화에 역점을 두었다. 92년판에서는 3대 컬러 특집으로 세계경제·EC, 에너지, 소련·유럽·중동을 다루고 있다.

아사히신문의「智慧藏」이 내세우는 것은 용어의 해설에 덧붙여 관련된 신문 기사, 데이터베이스, 참고문헌을 소개하고 용어의 배경까지 이해할 수 있게 신경을 쓴 점이다. 활약중인 인물에 대한 인명정보와 단체정보도 유익하다. 특집은「세계 신질서의 모색」등. 굳이 특징을 부여하자면「기초지식」은 전통과,「이미다스」는 맵시파,「지혜장」은 하이테크파라고나 할까. 이 책들은 작년 12월 20일 서점에서 일제히 발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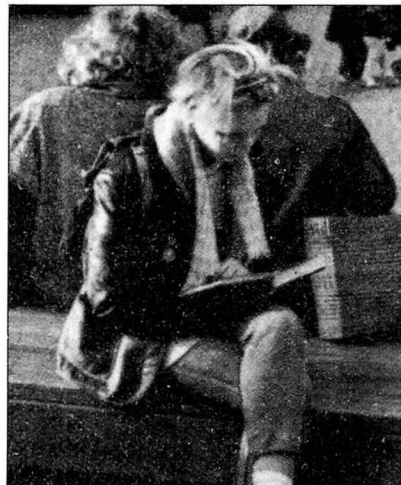
「이미다스」와「지혜장」이 뛰어났을 때는 지나친 과열경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독자적인 색깔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지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중간결산이다.「기초지식」의 부수는 5~60만부이고 3

사를 모두 합하면 200만부 가량 된다. 당연히 경쟁은 뜨겁다. 90년의 판매순위인「지혜장」,「이미다스」,「기초지식」이었지만 91년에는 순위가 뒤바뀌었다.

제작비 압박도 심하다. 92년판의 가격은 3개사가 합의하여 2,300엔으로 통일했지만 투입되는 노력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라는 것이 출판사측 시각이다. “이만큼 노력을 쏟아부어 미야자와 리에 누드 사진집 가격의 반에도 못 미치는 값”에 팔고 있다고 한 편집자는 푸념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 두꺼운 용어사전을 저렴한 가격에 매년 3종씩 쏟아내는 일본의 저력을 과시하는 업살로 들린다.

사랑이 넘쳐나는 소련의 출판가

요즘 모스크바에서는「러시아 에로스 또는 러시아인의 사랑의 철학」이라는 책이 시민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프로그레스社에서 나온 이 책은 러시아 작가들이 남긴 사랑에 관한 글 중에서 독자들에게 잊혀졌거나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만을 모아 엮은 것이다. 원래 소



최근 소련에서는 사랑과 성에 관한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련에는 성에 관한 문헌은 적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전문가만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글라스노스트, 민주화의 시대를 맞아 이런 종류의 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리학자 빅토르바의 저작「사랑과 섹스—신화로부터의 해방」은 다른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섹스에 관해서 말할 수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성의 상호관계의 문

제점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또한 사랑과 에로스를 문명사적으로 개관하는 책으로서「세계문화에 나타난 섹스」가 폴란드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사상社에서 출판되었다.

지금까지 이데올로기의 최전선에 위치해온 정치문헌출판소(쿠테타 이후 ‘에포하(시대)’社로 개명)도「세계와 에로스」라고 하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술한 사상가들의 사랑에 관한 주옥 같은 글을 모은 책을 출판했다. 러시아 작가에서는 벨린스키의「오네긴論」, 톨스토이의「크로이체르 소나타」 후기, 솔로비요프의「사랑의 의미」 등이 들어가 있다. 성 관련서로는 지난해 출판된 체육과 스포츠社의「사랑의 기법」도 빼놓을 수 없다. 발행부수는 50만부, 수익금의 일부는 에이즈 기금으로 기부한다고 한다.

공공연한 성전환 수술이 행해지고 영화에도 농도 짙은 성애가 거리낌없이 등장하게 된 소련에서 성 관련서의 출판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대규모의 만화책 경연잔치

제20회 佛 앙굴렘 국제만화제

에릭 비데

매해 1월에 개최되는 앙굴렘국제만화제는 올해(1992)로 스무해를 채우게 된다. 앙굴렘국제만화제는 사실상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만화 전문시장이자 축제이다.

여기에서 베풀어지는 여러 賞들은 대중적으로 만화의 질적 수준을 보장한다. 그 상들은, 앙굴렘에서 수여하는 大賞, 해당연도의 최상의 단행본 만화, 新人을 위한 첫번째 단행본에 주어지는 상, 대중인기상, 청소년 만화상, 외국만화상 등등이 있다.

이런 賞들이 만화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지만, 선정된 작품에 부여되는 권위는 대단하다. 단지 한 권의 만화책으로서가 아니라 연작이면 연작, 즉 작품 전체에 대해 수여되는 ‘앙굴렘시의 그랑프리’는 일종의 서품이라 할 만큼 작가에게

큰 영예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결국 만화책 시장에서의 성공도 기약한다.

1992년 1월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될 제19회 만화제는 市와 정부의 후원을 받는 것은 물론, 이번엔 처음으로 대형출판 유통회사인 르 크레르社의 지원도 받게 된다. 이 회사의 개입은 매출신장을 상당부분 장담할 수 있게 해준다.

1천2백만프랑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만화제에는 10만 이상의 관계자 및 방문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며 프랑스와 벨기에는 물론 다른 여러나라 사람들이 참석하게 될 것이다. 매년 1개 국가가 만화제의 명예로운 초대권을 받는데, 영국(1990) 일본(1991)에 뒤이어 금년에는 미국이 초대된다. 1991년의 경우 6천m²의 전시장에, 2백여 출판사들이 만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출판물들을 갖고 참여했다.(또 별도의 전시장에는 수집가와 만화를 이용한 독특한 상품들을 마련하기도 했다.) 언론인들은 전세계에서 4백50명 가량이 찾아와 취재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몇해 전부터 국제판권시장(M.I.D)도 형성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1991년에는 해외의 60개 출판사들이(유럽과 미주대륙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일본, 홍콩, 대만이 참가했다) 서로 만나 프랑크푸르트, 볼로냐에 다음가는 규모의 상담을 벌였고, 내년에는 미국의 대대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외국출판사들을 위해서는 두 가지 참여방식이 있다. 전문적인 판권상담만을 위해 M.I.D에 한 자리를 새내거나 전시장의 한 구역을 빌어 일반대중을 위해 만화책을 전시할 수 있다.

M.I.D의 한 자리를 얻는 데에는 최소한 5m²에 약 2천프랑 정도가 소요된다. 거기에는 서가, 책상, 의자, 바닥 깔개, 조명 등이 제공되며 공공시설 및 자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팩시, 전화, 복사기, 비디오 상영관의 이용, 영어 통역 등등...)

그러나 일반대중을 위한 전시장을 빌리는

것은 이보다 훨씬 비싸며 또 그 대여조건도 까다롭다. 무엇보다도 단행본만화책의 출간명세가 담긴 카탈로그가 제작된 수준의 출판사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 또 그 원작자들(시나리오, 태생) 초대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에게 사인해줄 수 있도록 말이다. 저자가 서명하여 독자에게 책을 건네주는 일은 특히 만화출판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관객을 끌어모으는 힘이기도 하고 또 판매량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전문적이며 상업적인 면 이외에, 이 축제에서는 질높은 문화프로그램들도 갖추고 있다. 전시회, 좌담회, 작가와의 대화 등으로 내년에는 두 개의 대형전시회가 마련될 텐데, 하나는 프랑스에 정착하게 될 ‘크롬’의 개인 전시회고, 또 하나는 미국장편만화전이다.

또 해마다 전년도 수상작자전도 개최된다. 이번에는 1991년도 대상 수상자였던 마르셀 고트리브의 대규모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런 전시회들을 앙굴렘 시립미술관과 국립만화센터와 공동으로 운영, 조직된다. 크고 작은 전시회들을 합하면 특별전만 해도 대개 20가지쯤이 된다.